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Family Demographics and Children's Emotional Reactions on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of Korean Parents

성균관대학교 아동학전공
전임강사 송 하나

Dep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

Full-time lecturer : Song, Hana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

Emotional expressiveness is a pathway by which parents affect the emotional competence of their childre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of parents is influenced by the emotional reactions of their children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in a family context. Data for the present study were from 200 parents in 100 two-parent families who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for emotional expressiveness, children's emotional reactions to stressful situations, and demographics. In preliminary analyses, mothers expressed emotions more frequently than fathers did, and mothers with high expressiveness of positive emotions were more educated and had higher family income. Although fa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was closely related to mothers' expressiveness, none of the demographic factors were related to fathers' expressiveness. When all predictors were considered i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family income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for mothers' positive expressiveness, whereas mothers' negative expressiveness were explained by children's emotional reactions, mother education, child sex, the number of siblings, fathers' education, and mothers' time spent with children. When controlled for mothers' expressiveness, fathers' time spent with children was the only significant predictor for fathers' negative express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varied with socioeconomic status. The discussion also examines the gender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i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relations to children's sex.

주제어(Key Words): 아동(children), 부모(parents), 정서 표현성(emotional expressiveness), 가족 인구학적 변인 (family demographics)

Corresponding Author: Hana Song,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3-Ga Myoungryun-dong, Chongro-ku, Seoul, 110-745, Korea Tel: 82-2-760-0531 FAX: 82-2-760-0531 E-mail: jni4ever@skku.edu

1. 서론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화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동의 정서적 능력이 이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강조됨에 따라, 부모-자녀 간에 일어나는 정서적 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부모는 아동이 생애 최초로 정서적 경험을 나누는 대상이며 아동이 정서에 대해 알아가는 통로가 된다(Lewis & Saarni, 1985: 1-17). 부모로부터 얻은 정서적 경험을 통해, 아동은 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준에 맞추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정서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라는 범주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양육 행동은 여러 영역에서 아동과 상호 작용하는 부모의 행동 유형으로(Darling & Steinberg, 1993), 보다 넓고 일반적인 형태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부모의 정서성이나, 특정 정서 행동들이 더 실제적으로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많은 연구자들(Eisenberg & Fabes, 1994; Gottman, Katz, & Hooven, 1996;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이 부모의 행동 영역을 세분화 하여 개별적인 정서 행동을 연구의 단위로 삼고 있다.

Eisenberg 등(Eisenberg *et al.*, 1998)은 다양한 정서 행동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아동의 정서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행동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동에 대한 정서 표현성(emotional expressiveness), 아동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지도하는 정서적 코칭(emotional coaching), 아동과의 정서적 대화(emotional communication), 그리고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parental reaction)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각각 다른 행동 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정서 코칭, 정서적 대화, 정서 반응은 부모가 아동과 일대일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의식적 행동인데 비해,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언어적, 행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정의되는 정서 표현성은 모방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Halberstadt, Cassidy, Stifer, Parke, & Fox, 1995). 예를 들어, 부모가 가정 내에서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정서를 표현할 때, 아동은 부모가 표현한 정서를 반복해서 관찰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정서 표현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지,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가게 된다(Boyum, & Parke, 1995; Halberstadt *et al.*, 1995). 또한,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대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정서 표현을 자주하는 부모가 아동과 더 활발히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학령 전기에는 아동이 주로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정서 표현을 관찰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Denham *et al.*, 1997; Halberstadt & Eaton,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 행동의 범주 내에서 연구되어온 다른 세 영역과는 달리 한국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것이 적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첫째, 정서 표현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가 기쁨, 애정 등의 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 할수록, 아동의 정서 표현성(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친사회적 행동(Denham, Renwick-Debaradi, & Hewes, 1994), 정서 이해력(이혜련, 최보가, 2002; Denham & Kochanoff, 2002; Dunsmore & Smallen, 2001)등 일련의 정서 능력이 높았고, 지나치게 강도가 높은 분노/화, 슬픔 등의 부적 정서 표현은 아동의 정서적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et al.*, 1997;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반면, 적절한 강도와 방법으로 표현된 부모의 화나 슬픔 등은 도리어 아동에게 부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ottman *et al.*, 1996).

이처럼, 부모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집단에서 일관성 있게 검증되었으나, 부모-자녀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성(bidirectional)이라는 것이 또한 널리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정서 표현성은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정의되었지만, 이런 특성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개인 내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부모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들(임희수, 박성연, 2001; Calkins, Hungerford, & Dedmon, 2004.; Martini, Root, & Jenkins, 2004)에서 영아의 기질이나 아동의 정서적 특징에 따라 어머니가 보이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지만 아동의 정서적 특징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이전의 관련 연구들은 어머니의 정서만을 다룬 것이 많다는 것이다. 어머니에 비해 아동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적은 아버지는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가정 내에서 오랜 기간 상호 작용해 왔기 때문에 아동 양육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비슷한 정서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

버지의 정서 표현성이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유사하게 따라가는 이차적인 것이며, 따라서, 아동에게 주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Parke와 McDowell(1998)은 아버지와 자녀간의 정서적 상호 작용이 기간은 짧지만 강도가 매우 강하고 집중적이어서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정서 표현성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성별에 따른 부모의 정서 표현성의 차이를 제시하여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를 더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정서를 더 활발히 표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아동과 보내지만(Casey, 1993; Denham, Renwick, & Holt, 1991; Ross & Van Willigen,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oyum & Parke, 1995). 여기에 더하여, 현대 사회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가사 분담이 점차 늘어나고(Lee, 1998: 249-266; Yang, 1999, 2001), 아버지들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진 것(이성희, 한은주, 1998)을 고려한다면,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 또한 아동 사회화의 특정 부분에 고유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한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을 모두 고려하여 부모의 성별에 따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맥락주의적(contextual)인 입장에서, 개인과 상호 작용하는 환경적, 기질적 요인을 제시한 Belsky(1984)나 정서적 사회화에 대한 아동, 부모, 사회/문화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Eisenberg 등(Eisenberg *et al.*, 1998)은, 아동의 성, 연령,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등을 부모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 변인(moderator variable)들로 제시하였다. 이런 변인들은 가정 내 환경을 설명하는 지표로, 유기체의 행동(부모의 정서 표현성)이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정서 표현성이 아동과 배우자, 그리고 가정 내 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국내에서 정서 표현성과 관련 있는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나,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지만, 부모의 양육 참여와 역할 수행 등을 다루어온 연구들(강란혜, 2000; 이성희, 한은주, 1998; 이정순, 2003)을 통해, 정서 표현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변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서 표현성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을 수행한 Halberstadt와 Eaton(2002)은 아동이 같은 성의 부모에게 더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아가 아버지에게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은 아동의 성과 부모의 성에 따라서 부모 정서 표현성의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Fivush, 1989; Cervantes, Callanan, 1998)에서 어머니는 여아의 정서 표현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남아의 정서 표현은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비슷한 결과가 국내 연구들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아버지는 남아에게 감정의 통제를 더 강조한 반면, 여아의 부적 정서를 더 허용하는 태도를 보였다(이지선, 정옥분, 2002; 한유진, 유안진, 1998).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는, 남자들의 행동이 성역할 행동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남아와 여아에게 부모가 보이는 정서적 표현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아동과 부모의 연령을 들 수 있다. 한유진과 유안진(1998)의 연구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는 아동에게 정서의 통제를 더 많이 요구하였고, 강란혜(2000)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 행동은 감소하여, 부모의 정서 표현성도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 행동이 부모의 연령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강란혜(2000)는 연령이 낮은 아버지일수록 애정적 양육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보고한 반면, 이성희와 한은주(1998)는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서적 역할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시 연령에 대해서는 성, 교육 수준, 직업 등의 다른 인구학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특히, 부모의 부적 정서 표현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가 부적 정서를 덜 표현하였으며(한유미, 손경화, 1998),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행동은 증가하였다(강란혜, 2000). 교육 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 소득과 상관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부적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이(Bradly & Corwyn, 2002; Bugental & Happaney, 2004) 알려져 왔으며, 한유미와 손경화(2004)도 가족의 수입이 높을수록 또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에 긍정적 정서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아버지의 역할 행동은 자녀수가 적을수록(이성희, 한은주, 1998), 노동시간이 적을수록(강란혜, 2000)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국내 아버지들이 아동 양육에 참여하여 정서적으로 활발히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직업의 종류가 많지 않았으므로, 노동 시간보다 실제로 하루에 아동과 보내는 양육 참여 시간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여 본 연구는 첫째, 부모의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1호, 2006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와 더불어 정서적 사회화에서 이차적 존재라고 여겨져 온 아버지를 같이 연구하였다. 둘째,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가족 내 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해 알아보려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1. 아동의 정서적 특성과 가족 내의 인구학적 변인들이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아동의 정서적 특성과 가족 내의 인구학적 변인들이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분당, 일산, 부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유아(남아 49명, 여아 51명)를 자녀로 둔 부모 200명을(100쌍의 부모)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녀의 연령을 학령전기 만 4-5세로 제한한 것은 이 시기에 부모가 아동의 정서적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Denham *et al.*, 1997). 이 연구는 아버지 변인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편부모와 이혼 가정을 제외한 양부모 가정만을 고려하였다. 참여 가정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 100명 이므로 빈도를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가정의 대부분은 자녀를 한두 명 가진 30대 부부의 가정이었다. 절반 이상의 아버지(61%)와 어머니(53%)들이 대학을 졸업했으며 어머니의 100%가 고졸 이상, 또한 2명을 제외한 아버지들이 모두 고졸 이상이었다. 3분의 1정도의 어머니가 취업모였으며, 연가계 소득은 3000만원-4000만원이 가장 많았고(36%), 2000만원 이하가 13%, 5000만원 이상이 17%였다. 절반 정도의 어머니가 2시간 이하(54%)를 또 46%가 3시간 이상을 아동과 보낸 반면, 거의 모든 아버지는 2시간 이하(96%)의 시간을 보냈으며, 5시간 이상을 아이와 함께 보낸 어머니는 전체 15%인 반면, 아버지는 오직 1%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아동 양육에 어머니의 몫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 도구

부모의 정서 표현성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예측 변인으로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들과 양육 참여 시간, 아동의 정서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

	어머니	아버지	아동
연령 Mean (SD)	33세 6개월(2,56)	36세 4개월(3,13)	4세 3개월(.30)
범위	27세 8개월-41세 1개월	30세 9개월-47세 3개월	3세 9개월-5세
고졸이하		2	
고졸	33	23	
전문대졸	14	14	
4년제 대졸	46	48	
대학원이상	7	13	
취업 (%)	29	100	
1000만원 미만		2	
1000만원-2000만원 미만		11	
2000만원-3000만원 미만		21	
3000만원-4000만원 미만		36	
4000만원-5000만원 미만		10	
5000만원 이상		17	
무응답		3	
자녀의 성 (%)			
여아			51
남아			49
형제의 수 (%)			
외동이			13
1명			80
2명			7
양육시간 (%)			
1시간 이하	8	44	
1-2 시간	46	52	
3-4 시간	31	2	
5시간 이상	15	1	
무응답		1	

적 반응, 연령, 성, 형제의 수가 고려되었다. 이런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정서 표현성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아동에게 보이는 정서 표현성은 Halberstadt 등(Halberstadt *et al.*, 1995)이 개발한 설문지 Self-Expressiveness Family Questionnaire(SEFQ)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SEFQ는 초판으로 개발된 Family Expressiveness Questionnaire(FEQ)의 개정판으로 가족 내 구성원들 간의 일대일 정서 표현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설문지는 크게 정적 정서, 부적 정서의 두 영역으로 나뉘는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에서 설명하는 상황이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는지를 9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영어로 된 설문지를 연구자와 인간발달전공 대학원생 1명이 한국어말로 번역하고 영문학전공 대학원생 1명이 다시 영어로 역 번역(back-translation)하였고 2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문장 순서와 어휘, 내용을 수정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Halberstadt 등(Halberstadt *et al.*, 1995)에 의해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지지되었고, 이해련, 최보가(2002)는 요인 분석 결과, 정적, 부적 두 요인에서 .67-.87사이의 신뢰도를 보고했다. 또한, SEFQ는 부모의 정서적 표현을 관찰하는 도구인 Maximally Discriminative Facial Movement Coding system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Cassidy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주축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직교회전(VARIMAX)을 사용한 요인분석에서 정적, 부적 정서 표현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이 나타나 구성 타당도를 지지하였다. 각 요인에서 적재치가 .30보다 낮은 문항과 두 요인 모두에 중복 적재된 문항들을 제거하고 남은 32문항 중에서 17문항을 포함한 정적 정서 표현성과 15문항을 포함한 부적 정서 표현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각각 .93과 .89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정서적 반응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선행 연구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영아의 정서적 기질을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많이 사용하였으나, 기질적 특성은 영아기 이후 계속 변화하며 측정 방법에 불안정한 점이 있었으므로, 만4-5세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서적 반응을 고려하였다. 부모-자녀 사이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하루일과의 작은 사건들에서 일어난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enham 등(Denham *et al.*, 1997)이 고안한 설문지에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심하고 아동 개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큰 질문들(예; 친구나 가족 구성원의 죽음, 부모의 신체적 체벌)

을 제외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5개의 문항들은, 매일 아침 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것, 부모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 길에서 무서운 개(동물)를 보았을 때, 새로운 것(수영)을 배우거나 시도할 때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각 상황에서 자신의 아이가 대체로 어떤 정서를 보이는지(혹은 보일지)를 답하였다(예; 기쁨, 짜증, 화냄, 슬픔). 아동이 정적인 정서를 보인다고 답한 것에는 1점, 부적인 정서에는 0점으로 채점하였다. 다섯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40였으며 아동의 정서 반응 점수는 이야기 과제인 Puppet Task로 측정된 아동의 정서적 이해력과 유의한 상관($r=.29, p<.05$)이 있어 간접적으로 타당도의 증거를 제시하였다. Cronbach's alpha값 .40은 중간 정도의 신뢰도를 의미하는데 선행 연구들에서도 어린 아동일수록 반응의 범위가 넓고 또한 문항의 수가 적을수록 다소 낮은 alpha 값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3)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양육 참여 시간

부모의 연령, 교육 수준, 취업 유무, 가족의 연 소득, 아동의 연령, 성, 형제의 수 등을 조사하였고 양육 참여 시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아동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질문하였다.

3. 연구 절차와 자료 처리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11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만 4-5세 아동을 가진 250개 양부모 가정(two-parent family: 500명의 부모) 선정되었다. 선정된 가정에 아동을 통해 연구의 내용을 알리는 편지, 동의서, 어머니용 설문지, 아버지용 설문지들이 담긴 패키지를 보내어 부모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 아동을 통해 되돌려 보내게 하였다. 부모가 작성을 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평균 3주 동안 232부로 46%의 회수율을 보였고 최종 분석은 아버지용 설문지 자료를 얻지 못한 가정을 제외하고 남은 100가정의 200명 부모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과 처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에서의 차이를 기술치와 변량분석으로 알아보고 Pearson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각 집단 별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배우자의 정서 표현성을 통제하고 난 후, 각 예측 변인들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범주형 변인(categorical)들을 더미 코딩하여 연속 변인으로 처리하였고 모든 통계 처리에는 SPSS version 11이 사용되었다.

III. 결 과

1. 기술치 및 예비 분석 결과

1) 부모의 정서 표현성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정서 표현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평균이 아버지보다 높았는데,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별로 부모와 아동의 성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 정적 정서에서만 부모의 성에 대한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F(1, 196) = 5.61, p < .05$).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에게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기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r = .31, p < .01$), 아버지의 교육 수준($r = .27, p < .01$), 가계 소득($r = .28, p < .01$), 그리고 아버지

의 정적 정서 표현성($r = .27, p < .01$)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은 어머니의 양육 시간과는 부적 상관이($r = -.23, p < .05$), 아버지의 교육 수준($r = .21, p < .05$) 및 아버지의 부적 정서 표현성과($r = .34, p < .01$)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고 아동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어머니는 부적 정서를 적게 표현하였다. 특히 정적, 부적 정서 모두에서 부모의 정서 표현성은 배우자의 정서 표현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부적 정서 표현성은 어머니의 연령($r = .20, p < .05$), 아버지의 양육 시간 ($r = -.30, p < .01$)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적 정서를 적게 표현하였다.

그 외의 예측 변인들 간에도 몇몇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상관 값이 낮아서 심각한 다중 공산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계 소득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교육 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r = .22, p < .05$)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정서 표현성

		어머니			아버지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정적 정서 표현성	평균	105.07	106.07	105.58	99.00	96.67	97.81
	표준편차	(23.06)	(21.26)	(22.05)	(25.45)	(22.47)	(23.89)
부적 정서 표현성	평균	51.74	46.78	49.21	44.84	46.39	45.63
	표준편차	(14.77)	(16.63)	(15.87)	(17.11)	(16.74)	(16.86)

<표 3> 부모의 정서 표현성과 예측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어머니]															
1. 정적정서표현성	-														
2. 부적정서표현성	-.06	-													
3. 연령	-.17	.07	-												
4. 교육수준	.31**	-.03	.07	-											
5. 취업 유무	-.05	.06	.13	-.03	-										
6. 양육 시간	.18	-.23*	-.07	-.09	-.25*	-									
[아동]															
7. 연령	.04	.09	.06	-.11	-.05	.08	-								
8. 성	-.02	.16	-.04	.07	.09	.04	-.04	-							
9. 형제의 수	.18	.17	-.08	-.03	-.16	-.02	-.06	-.11	-						
10. 정서적 반응	.09	-.17	-.01	-.03	-.01	-.07	.11	-.16	.05	-					
[아버지]															
11. 연령	.04	.09	.63***	-.11	-.05	.08	.12	-.12	-.18	-.08	-				
12. 교육수준	.27**	.21*	-.08	.60***	-.10	.09	.16	.01	-.05	.05	-.01	-			
13. 양육시간	.10	-.03	.03	-.00	-.08	.09	-.09	-.03	.16	.05	.10	.01	-		
14. 정적정서표현성	.27**	.05	.15	.17	.01	.09	-.09	.05	.04	.05	.15	.10	.08	-	
15. 부적정서표현성	-.09	.34**	.20*	.08	.10	-.17	.04	-.06	-.11	.04	.08	.14	-.30**	-.02	
[연 가계 총소득]	.28**	.14	-.04	.29**	.22*	-.03	.32**	-.09	-.02	.09	.15	.39***	-.26*	.07	.0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으나, 어머니의 취업은 양육 시간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r=-.25, p<.05$), 아버지의 양육 시간도 소득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26, p<.05$). 즉,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거나 부모가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반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문제 분석 결과

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어머니 자신과 아동, 아버지의 인구학적, 정서적 특징들이 어머니의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표현성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는, 우선 첫 단계에서,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이 고려되고, 다음 단계에서 모든 예측 변인들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중복되는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을 통제하였다.

<표 4>의 첫 번째 단계에서, 아버지의 정적 정서 표현성($\beta=.29, p<.01$)은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인들과 아동의 정서 반응이 회귀 방정식에 추가되었다. 이 변인들 중에서는, 가계 소득($\beta=.26, p<.05$)만이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여,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가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에,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으나($\beta=.22, p<.10$), 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두 단계를 모두 포함한 전체 회귀 모델은, 어머니 정적 정서 표현성 전체 변량의 31%를 설명하였고,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을 제하고 난 나머지 변인들에 의해 증가된 설명력은 22%로 그 기여도는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정적 표현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부적 정서 표현성($\beta=.35, p<.01$)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 부적 정서 표현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beta=-.32, p<.01$), 양육시간($\beta=-.24, p<.05$), 아동의 성($\beta=.22, p<.05$), 형제의 수($\beta=.24, p<.05$), 아동의 정서적 반응($\beta=-.21, p<.05$), 아버지의 교육 수준($\beta=.37, p<.01$)등 이었다. 즉, 어머니는 아동이 남아이고, 자녀의 수가 많고,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낮을 때 부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반면, 교육 수준이 높고 아동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어머니가 부적 정서를 적게 표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아버지의 부적 정서를 제외한 일련의 예측 변인들은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에 대한 전체 회귀 모델의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26%),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38%였다.

<표 4>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예측 변인	준거 변인						
	정적 정서 표현성			부적 정서 표현성			
	B	β	t	B	β	t	
[1단계]							
아버지 정/부적 정서표현성	.26	.29	2.93**	.33	.35	3.58**	
		R ² =.09 F=8.60**			R ² =.12 F=12.83**		
[2단계]							
아버지 정/부적 정서표현성	.23	.26	2.65*	.32	.34	3.51**	
어머니 연령	-.03	-.09	-.70	.00	.01	.07	
교육수준	1.23	.22	1.69+	-1.52	-.32	-2.67**	
취업유무	-.40	-.02	.19	.01	.01	.09	
양육시간	1.78	.14	1.35	-2.57	-.24	-2.49*	
아동 연령	.10	.03	.30	-.11	-.04	-.42	
성	-1.87	-.09	-.87	4.01	.22	2.36*	
형제의수	2.02	.08	.84	4.93	.24	2.60*	
정서적 반응	-.09	-.01	-.07	-2.27	-.21	-2.27*	
아버지 연령	-.06	-.20	-1.55	.03	.12	.99	
교육수준	-.12	-.02	-.17	1.68	.37	3.03**	
양육시간	1.80	.10	.94	.73	.05	.47	
가계연소득	2.18	.26	2.11*	.67	.09	.82	
		R ² _{ch} =.22 F _{ch} =2.14*			R ² _{ch} =.26 F _{ch} =2.88**		
전체회귀모델		R ² =.31 F=2.74**			R ² =.38 F=3.89***		

+p<.10, *p<.05, **p<.01, ***p<.001

〈표 5〉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예측 변인	준거 변인						
	정적 정서 표현성			부적 정서 표현성			
	B	β	t	B	β	t	
[1단계]							
어머니 정/부적 정서표현성	.33	.29	2.93**	.37	.35	3.58**	
		R ² =.09 F=8.60**			R ² =.12 F=12.83**		
[2단계]							
어머니 정/부적 정서표현성	.34	.31	2.65*	.41	.39	3.51**	
아버지 연령	.06	.19	1.33	-.01	-.03	-.26	
교육수준	.06	.01	.07	.32	.07	.48	
양육시간	1.06	.05	.46	-4.47	-.27	-2.60*	
아동 연령	-.29	-.09	-.75	.02	.01	.07	
성	3.31	.14	1.28	-1.55	-.08	-.78	
형제외수	1.89	.07	.65	-3.11	-.14	-1.40	
정서적 반응	1.99	.14	1.31	1.93	.17	1.67+	
어머니 연령	.04	.09	.65	.05	.16	1.21	
교육수준	.66	.11	.75	.49	.10	.73	
취업유무	1.44	.05	.47	1.11	.05	.49	
양육시간	1.43	.10	.89	.10	.01	.08	
가계연소득	-.38	-.04	-.64	-.09	-.69		
전체회귀모델		R ² _{ch} =.11 F _{ch} =.89			R ² _{ch} =.17 F _{ch} =1.61		
		R ² =.19 F=.1.47			R ² =.29 F=.2.54**		

+p<.10, *p<.05, **p<.01

2)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아버지의 정적, 부적 정서 표현성 각각에 대한 각 예측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본 다중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예측 변인들 중에서, 아버지의 정적 정서 표현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beta=.29$, $p<.05$)뿐이었으며, 다른 인구학적, 정서적 변인들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부적 정서 표현성에 대해서는, 회귀 모델의 첫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beta=.35$, $p<.01$)의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나머지 변인들이 더하여 졌을 때, 아버지의 양육 시간($\beta=-.27$, $p<.05$)이 부적 정서 표현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아동의 정서적 반응($\beta=.17$, $p<.10$)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는 아동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부적 정서를 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은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통제했을 때 양육 시간을 제외한 다른 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해서는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체 회귀 모델은 아버지의 정적, 부적 정서 표현성 전체 변량의 각각 19%,와 29%를 설명하였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인구학적, 아동의 정서적 반응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측 변인들이 부모의 정적 정서보다는 부적 정서 표현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부적 정서 표현성이 가족 구성원의 행동과 가정환경에 따라 변화가 크다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에서만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하루 일과의 스트레스에 정서적으로 잘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짜증을 부리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어머니를 힘들게 할 때 어머니가 부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까다롭고 위축된 정서적 기질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가 더 통제적이고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임희수, 박성연, 2001; Calkins *et al.*, 2004; Martini *et al.*, 2004)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두 번째, 아버지의 정적 정서 표현성은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고, 아버지의 부적 정서 표현성 역시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과 아버지가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은 다른 가정 내 인구학적 변인들이나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는 관련이 없었다. 특히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은 배우자의 정서 표현성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는데, 한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자의 성격이나 정서성이 현저히 다를지라도 서로 아동 양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거나 같이 문제에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 표현성에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아동과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아버지들이(44%) 하루에 아동과 지내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답하였다. 이것은, 정서적 사회화에서 어머니가 일차적 주체이며, 아버지는 아동 양육에 대해 아직은 이차적인 보조자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 참여 시간이 많은 아버지의 부적 정서 표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강란혜(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아버지가 역할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간접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은 아버지의 정적 정서 표현성과 가계 소득에 따라 유의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이 높은 부모가 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한유미, 손경화(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부모 양육 행동의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을 뿐 아니라(Bradly & Corwyn, 2002; Bugental & Happaney, 2004), 아동이 정서,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요인(Schultz & Shaw, 2003)이라고 알려져 왔는데 특히, Bugental 과 Happaney(2004)는 저소득층 부모는 아동 양육에 자신감이 낮아 우울하고 불안정한 정서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은 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 양육 시간, 아동의 성, 형제의 수 등이었다. 선행 연구들(Bradly & Corwyn, 2002; Schultz & Shaw, 2003)에서는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이 부정적 혼용행동의 요인으로 나타나 교육 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아이와 긍정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었음을 제시하였다. 양육시간과 형제의 수,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과의 관계는 어머니의 육아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생활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어머니는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뿐 아니라 경제적, 육체적 부담감이 늘어나므로 이것이 육아 스트레스를 높여 부적 정서 표현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육아와 스트레스에 대한 실증적 증거 없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성차에 대해 어머니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부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것은 성역할의 영향으로 본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는 여아에게는 정서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남아에게는 정서를 통제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이지선, 정옥분, 2002; Fivush, 1989) 이것

이 남아에 대한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을 증가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에서 부모의 정서 표현성을 돕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모의 정서적 사회 작용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몇가지 점들을 더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한계는 부모-자녀간 정서 사회화의 양방향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 아동이 부모의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부모의 표현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정서적 반응은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 철저히 고려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부모의 정서적 표현성은 눈으로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설문법과 더불어, 실제 관찰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부 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대적 역할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결혼 만족도, 배우자의 정서성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배우자 관련 변인들이 포함되어 맥락적으로 더 포괄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정서 표현성은 정서적 사회화 행동의 한 부분으로, 다른 정서적 행동과도 상호 작용한다. 아동에게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코칭, 정서적 대화 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그 관계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서 표현성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으나, 정서 표현성에 대한 선천적 생물학적 특성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란혜(2000). 아버지 역할 수행의 결정 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이성희, 한은주(1998).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부부 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9-108.
- 이지선, 정옥분(2002). 부모의 정서 표현 수용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 지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33(1), 17-35.
- 이혜련, 최보가(2002). 학령전 아동의 정서 이해와 부모의 정서 표현성 및 아동 정서 수용 태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03-112.
- 임희수, 박성연(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 조절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정서 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한유미, 손경화(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한유진, 유안진(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yum, L. A., & Parke, R. D. (1995).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93-608.
- Bradley, R., & Corwyn, R.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371-399.
-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dgeway, D.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Bugental, D. B., & Happaney, J. (2004). predicting infant maltreatment in low-income families: the interactive effects of maternal attributions and child status at birth.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34-243.
- Calkins, S. D., Hungerford, A., & Dedmon, S. (2004). Mothers' interactions with temperamentally frustrated infant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5(3), 219-239.
- Casey, R. (1993). Children's emotional experience: Relations among expression, self-report, and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19-129.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C.,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ervantes, C. A., & Callanan, M. A. (1998). Labels and explanations in mother-child emotion talk: age and gender different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88-98.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enham, S., & Kochanoff, A. T. (200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Emotion and the Family*, 34(3/4), 311-343.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 Denham, S. A., Renwick-DeBardi, S., & Hewes, S. (1994).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ers: relations with emotion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4), 488-508.
- Denham, S. A., Renwick, S. M., & Holt, R. 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Denham, S.,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unsmore, J., & Smallen, L. (2001). Parents' expressiveness and young children's emotion decoding with parents and unknown adul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4), 478-494.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Fivush, R. (1989). Exploring sex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content of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Sex Roles*, 20, 675-691.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Halberstadt, A., Casidy, J., Stift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alberstadt, A., & Eaton, K. L. (2002). A meta-analysis of family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and understanding. *Emotions and the Family*, 34(1/2), 35-62.
- Lee, K. K. (1998). Confucian tradition in the contemporary Korean family. In W. H. Slote, & G. A. DeVos(Eds.), *Confucianism and the family*(pp. 249-266).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ewis, M., & Saarni, C. (1985). Culture and emotions. In M. Lewis & C. Saarni(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pp.1- 17). New York: Plenum Press.
- Martini, T. S., Root, C., & Jenkins, J. (2004). low and middle income mothers' regulation of negative emotion: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situational emotional responses. *Social Development*, 13(4), 515-530.
- Parke, R. D., & McDowell, D. J. (1998). Toward an expanded model of emotion socialization: new people, new pathways. *Psychological Inquiry*, 9(4), 303-307.
- Ross, C. E., & Van Willigen, M. (1996). Gender, parenthood, and ang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572-585.
- Shultz, D., & Shaw, D. (2003). Boys' maladaptiv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mily emotional climate, and pathways to early conduct problems. *Social Development*, 12(3), 440-461.
- Yang, J. A. (1999). An exploratory study of Korean fathering of adolescent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0(1), 55-69.
- Yang, J. A. (1999). Fathering and children's sex role orientation in Korea. *Adolescence*, 35, 731-746.

(2005년 7월 31일 접수, 2005년 11월 14일 채택)